

■ 르포 - '특별법 3년' 달라진 성매매 풍속도

‘허브샵’ ‘휴게텔’ 등 간판 바뀌 유혹

주말인 지난 8일 밤 11시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 밀집지역 답게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한다는 허브샵 광고 전단지들이 거리 곳곳에 뿌려져 있었고, 일부 업소들은 1트럭에 대형 전광판까지 탑재해 성매매를 유혹하며 거리를 누볐다.

‘A허브샵’을 찾아 들어갔다. 이곳은 20대의 젊은 여성이 피부마사지부터 성행위까지 한 곳에서 해결해 주는 안마사술소의 변종.

잠금장치로 단속 대비

허브샵은 식당, 유흥업소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 6층에 있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부와 복도 곳곳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2층으로 된 출입문을 열자 ‘딩동~’하며 빨이 울렸다. 종업원으로 보이는 20대 청년이 실내화를 들고 마중했다. ‘실장’이라고 불리는 30대 여성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기존 마사지 업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현금 16만원을 내면 최고급 아로마 제품을 이용한 전신 마사지는 물론이고 ‘연애’(성행위)까지 60분간 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이 걱정된다고 하자 “방마다 잠금 장치가 있고, 1층에 CCTV 카메라가 설치돼 단속반이 올라오는 동안 미리 피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남구 백운동의 또 다른 ‘B허브샵’은 색다른 서비스로 유명했다. 남성 손님 1명에 3명의 여성이 동시에 서비스를 해주는 일명 ‘하렘 서비스’. 최근 이곳을 방문한 C(31)씨는 “기분 서비스는 16만원에 여성 한 명이 들어오지만 1만원을 추가할

인터넷 채팅방 ‘조건 만남’ 북적

상업지역·가정집까지 파고들어

때마다 여성 한 명이 더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3년여 동안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성매매 업소들은 허브샵·피부관리실·휴게텔·전화방 등으로 상호와 서비스 등을 바꿔가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인터넷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종 채팅사이트에서는 하룻밤 새 ‘조건 만남’(상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형태)을 원하는 남성과 쉽게 돈을 벌려는 여

성들의 글로 게시판이 도배된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오XX’라는 게임 채팅이 유행하면서 ‘오앤’(사이버 애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일부 이용객들은 아이টে를 주고받으며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창촌’에서 주로 이뤄지던 성매매가 특별법 시행 이후 상무·첨단지구 등 상업지역은 물론, 인터넷 등을 타고 각 주택가로 파고드는 등 점점 ‘음성화’되고 있다. 동구 대인동과 남구 월산동 등 기존 집창촌 업소들도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입건된 성매매 특별법 위반 건수는 ▲2004년 119건(검거인원 257명) ▲2005년 325

집창촌 업소도 늘어

건(649명) ▲2006년 481건(916명) 등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182건에 409명이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업주와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 유형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개발하는 등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유혹의 거리 주말인 8일 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거리. 변종 성매매 업소인 ‘허브샵’ 네온사인인 남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 서구 고교 1년생 650명 정신건강검진

우울증·폭력·자살 예방

광주시 서구청이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한다. 청소년들의 우울증·폭력·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구청은 9일 “관내 고등학교 1학

년(16세)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서구청은 이에 따라 ‘상무·금호 보건지소’에서 10일부터 이들 학생들의 학업·친구·성 문제 등을 묻는 심

리평가서로 첫 번째 검사를 진행한 다. 서구청은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에 대해 선별 검사를 하고, 여기서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전문의료기관의 3차 확진을 권고 ▲부모 및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

다.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폭력 및 가출 등 청소년들의 비행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의지가 약한 학생들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며 “검진을 통해 청소년 시절에 양가 문제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벌초’ 예초기·말벌 조심

무안서 1명 사망 등 사고 잇따라

추석을 앞두고 벌초 행렬이 이어지면서 예초기에 다치거나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오전 10시께 구례군 광의면 연파리 야산에서 자녀들과 벌초를 하던 박모(여·70·구례읍)씨가 예초기 칼날에 옷 소매가 말려들면서 오른쪽 안 ▲구례 2명 ▲순천 1명 ▲광양 1명 등 6명이 예초기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8일에도 최모(54·해남군 해남읍)씨가 해남읍 인근 선산에서 벌초를 하다 손가락을 예초기 날에 다치는 등 목포·무안·강진·고흥

등지에서 6건의 예초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8일 오전 10시께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김모(68)씨가 말벌에 온몸을 쏘여 숨지는 등 벌에 쏘이는 사고도 잇따랐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초를 할 때는 사전에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작업 전에 벌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초기 칼날 보호덮개를 꼭 부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또다시 고개 든 ‘간통죄 위헌 논란’

판사가 위헌심판제청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놓고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 판사는 “그 동안 가정 보호와 성도덕 보호의 관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간통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이나 도덕적 책임으로 보아 이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 판사는 최근 1년간 간통죄에 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간통죄가 ‘실무적으로 수명이 다한 법’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전했다.

/연영뉴스

‘위험 표시’ 해상 부표 사고 위험

완도 무분별 설치...곳곳서 어선 충돌

완도군 보길~노화 해역에 각종 해상 부표(浮標)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항해 어선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일 낮 12시40분께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항 앞 해상에서 완도선적 전복 채취선 26급 어선(선장 권모·38)이 충돌, 권씨가 다쳤다. 이 해역은 폭이 600여m에 불과한 데도 부표가 6개나 설치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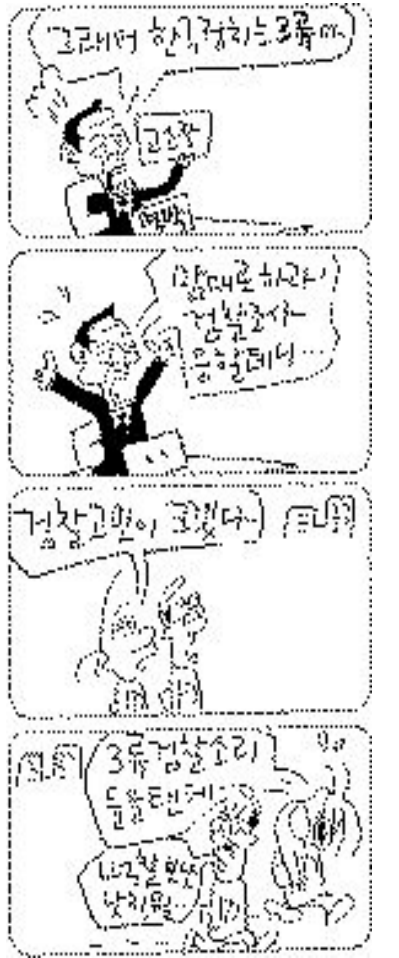
지난 1월에도 완도군이 ‘보길~노화 해역 상수도관’ 매설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같은 해상에 설치한 부표(너비 1m·높이 5m)에 완도선적 전복 채취선 26급 어선(선장 권모·38)이 충돌, 권씨가 다쳤다.

이 해역은 폭이 600여m에 불과한 데도 부표가 6개나 설치돼 있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광주도원신문 계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kjpc.or.kr

나원침 (7304) 김종두



다들 물어봐... 신협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수도덕 대학 KCC정보시스템(주) 생산·시공 KCC정보시스템(주) (주)본드나리 KCC건설, 매연대리점 실리온·방수재·합작재·타이브

소매치기 발각되자 간질원자 행사



○ 시내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하던 중 범행이 발각되자 간질원자 행세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달미.

○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9)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남구 사동 D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타 승객 정모(여·23)씨의 손가방에서 현금 5만5천원이 든 지갑을 몰래 꺼내 가져가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7만6천5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 김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버스 바닥에 누워 간질원자 흉내를 내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으나 지난달 초에도 같은 수법으로 구속을 면한 사실들 안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이 들통.

○ 김씨는 경찰에서 “특별한 직업도 없는데, 생활비마저 떨어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 조이트레블. It lists several properties for sale with prices ranging from 299,000 to 449,000.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to of a ma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하' (Upper/Lower) properties. It features a table with property details and prices, and a photo of a buildi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제1회 카이러이 한일 이미지 투어 골프대회'. It features a large photo of a golf course and text about the tournament. Contact information is provided at the bottom.